

# 파시즘의 탄생 (부제: 우리의 병은 오래전에 시작되었다. 독후감)

멘봉박사

우리 방구석 로봉이들은 항상 전쟁 중이다. 파시스트와, 대안우파와, 우리 스스로의 반동들과 끝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로봉이들을 위해, 사상적 무기 공급을 할 겸에 바디우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볼까 한다.

이 책은 크게 현실에 나타난 큰 문제를 3가지 축으로 짚는다.

하나는 자본주의의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이다. 21세기에 자본주의는 철저하고, 완벽한 승리하였다. 너무 완벽하게 승리한 나머지, 사회주의에 대한 논의는 거의 범죄행위와 같아져 버렸다. 감히 자본주의에 의문을 품는 것은 사회에서 정신병자 취급을 받으며, 현실을 하나도 모르는 이상주의자나 샌님 소리에 불과하다고 취급받는다. 사상적 다양성은 말살되었고, 오직 하나의 레일밖에 남지 않았다. 우리는 긴 설국열차에 끝자락에 만족해야만 한다는 잔혹한 현실을 들이밀며, 세상은 원래 그렇다고 세뇌시킨다. 그들은 자본주의의 전체적, 세계적, 체계적 대안이 있다는 발상을 완전히 근절해버렸다.

둘째는 자본주의의 결과물인 부의 불평등이다. 현재 1%가 46%의 부를 10%가 86%의 부를 상위 50%가 100%의 부를 거머쥐고 있다. 하위 50퍼센트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하위 50퍼센트는 아무 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에 무언가를 할 수 없다. 그들이 위협이 되려고 해도, 오직 몸뚱이만 가지고 피켓처럼 서있어야만 한다. 오히려 우리 세계의 실질적 위협은 상위 10%-50%에서 찾아온다. 그들은 도무지 견딜 수 없다.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도무지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킬 수 없다. 그러나 이 세계는 레일이 하나밖에 없다.

인간은 이러한 상태를 정신적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러나 다른 레일을 찾을 수 없는 서구 시민의 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그래도, 그 물조차 없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자위하고 하류층과 자신들을 구분하며 끝없는 울타리를 세우는 것이다. 현재의 대다수의 갈등은 이에 대한 현상이다. 인종 간 갈등, 종교 간 갈등, 남녀 간 갈등 또한 결국 동전을 가진 자가, 동전을 가지지 못한 자를 끝없이 밀어내려는 것에 불과하다. 자신은 아직 떨어지지 않았음을 안도하며, 그 조그만 동전을 뺏으려는 자들에게 끝없는 복수와 철퇴를 요구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길은, 나도 그들과 같이 약탈자가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다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또한 자신이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무산 계층이 얼마나 비참할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서구사회에서 거부된 자신과 자신의 부정적 욕구를 해소할 수 없으니, 그들은 이슬람과 같은 다른 사상에 몰두하게 되며, 거기에서 대안을 찾는다. 그러나 그러한 사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현재 이슬람, 중국식 사회주의, 아프리카에 나타나는 기독교 근본주의나 이슬람 근본주의는 그 누구보다도 자본주의적이다. ISIS가 석유를 거대 회사들에게서 팔며, 아프리카의 반군세력 또한 절대 채석장을 폭파시키지 않는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목을 졸랐던 자본주의의 첩병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몸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

마지막 축으로는, 서구의 폭력이다. 자본은 끝없이 팽창한다. 마치 자본은 해일과 같아서 그곳에 남은 모든 것을 파괴한다. 서구 세력에선, 정부나 다른 도덕적 가치가 남아 자본주의의 마지막 방파제가 되어주었지만, 이것은 자본주의의 적이다. 그들은 그것조차 없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국가를 침략하며, 거기에 남은 건 오직 잿더미뿐이다. 그것을 이 책에서는 비국가화된 약탈 지역zone이라고 명명한다. 서구사회는 zone에 끝없는 빗으로 그들의 개들에게 목줄을 채우며, 그곳의 반군 세력과 거래를 한다. 그들은 단지 그들에게 싼 값에 물품을 팔아주는 고마운 손님에 불과하다. 그곳에서 얼마가 죽든, 그것은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다. 단지, 그곳에서 얼마를 벌지가 중요한 것이다. 국가는 절대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력을 보내지 않는다. 단지 그들의 이권이 침해받을 때에만 그 무거운 엉덩이를 때어 손수 목줄을 건다.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알제리 전쟁, 말리 전쟁 등에 개입하며, 그들의 국가를 단죄하며, 그들의 정의와 세계질서 수호를 외친다. 그러나 그들이 외치는 것은 서구의 정의이며, 서구사회의 이익 수호일 뿐이다. 세계의 많은 지역들이 무정부상태이며, 오직 자본이라는 폭력 아래 무릎 꿇는다.

우리는 이를 이겨내기 위해서 연대해야 한다. 끝없이 연대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동전 한 톨을 포기해야한다. 작가는 분명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이러한 용기가 있고, 이러한 운동들이 시작되고 있음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작가는 경고한다.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라고.....